

헤어 디자이너들의 헤어컬러 및 헤어컬러 제품 선호도 조사

김성남¹⁾ · 남윤자²⁾

1) 박준미장 본사 교육실

2)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The Research on the Hair Color and Products Preference for Hair Designers

Sung-Nam Kim¹⁾ and Yoon-Ja Nam²⁾

1) Park Jun Beauty Salon, Seoul, Korea

2) Dept. of Clothing,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 The hair designers are fashion leaders who affect hair color of peopl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some tips to satisfy customers through surveying hair designers most like color and the criteria of products choice. To have practical result, I use survey method. I took 120 hair designers who work for Park Jun beauty salon for the survey data. Among these data, I used 103 for the final data of analysis. The results are following, male hair designers like natural brown and blue coral color for hair coating. In addition, they like black color for coloring. Female hair designers like much more various color. they like orange color for coating and natural brown for coloring. Hair designers much more satisfied for international brand goods in all criteria except price. All of hair designers have favorite goods for the quality and brand image. Therefore domestic brands need much more effort to improve quality and its brand image.

Key words : hair designers, hair color, favorite goods, quality

1. 서 론

오늘날 모발 염색은 현대 여성들에게 있어 최상의 아름다움을 제공하며, 모발을 통해 아름다움을 전달함으로써 이미지를 변신하고 개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외모의 변화는 통해 가치관이나 지위, 직업 등 내면적인 것을 전달하는 비언어적 메시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

모발염색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머리색의 유행이 변화하고 있다(나영순 · 유현주, 2000). 머리카락이 검은색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있으며 그렇다고 비슷한 갈색 계열이 아니라 그야말로形形色색의 오렌지, 와인, 레드, 골드 거기다 무채색의 화이트와 실버까지 거리의 10대부터, 20, 30대 직장인, 40대 주부들까지 '컬러링'이 그저 컷트나 퍼머넌트처럼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윤지성, 2001). 즉, 헤어컬러링은 의상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과 함께 자신만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연출하는 토털패션의 한 장르가 된 것이다(이미선, 1999).

특히 여성들은 예로부터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모발을 염색하였고 색의 조화에 맞추어 모발에 선택된 색을 알맞고 조화롭게 배치하는데 관심을 가져 현재는 많은 여성들

이 헤어스타일 뿐 아니라 그에 어울리는 특정한 색을 선택하여 염색을 하고 있다(최귀자, 2001). 즉, 현대여성들은 수시로 거울을 보지 않고는 걱정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나이가 들어도 늘 아름다움과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것은 인류의 끊임없는 바람이다(소영진, 2000).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들 또한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의 한 방법으로 모발염색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과거에는 남녀의 모발이 일반적으로 흑갈색 이였으나, 최근에는 모발색이 전체적으로 밝아지고 다양한 색이 멋의 일종으로 일반화됨으로서 '칠흙같은 삼단머리'라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다양각색의 모발이 등장하고 있다(정연, 2001). 또한 대중매체를 통해 모델, 가수, 배우들의 헤어스타일 모발 색상에 영향을 입어 상당히 대중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김경순 등, 1998).

이러한 최근의 경향에 맞추어 국내 산업현장에서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유행컬러에 대한 정보를 즉시 받아들여 고객들의 요구에 대응해나가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염색관련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모발염색에 관한 연구는 염모제의 소비행태와 안정성에 관한 연구(임병국, 1987;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모발색상(나영순 · 유현주, 2000) 및 염모제에 관한 현황과 의식 및 발전방향(심미자, 2000; 최연희 등, 2000)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모발염

색 실태와 관련 요인(최귀자, 2001; 윤지성, 2001), 시술 후 처리에 관한 실태(정지영, 2001) 등에 관한 조사 연구들이 있으며, 염색약의 증감속(최영진·유유정, 2000), 모발의 역학적·영양학적·형태학적변화(김순희, 1996; 정연·성수광, 1999) 및 염색 및 탈색에 의한 모발의 형태학적인 변화(김수정 등, 1996; 이원경, 1999; 오지민·오지영, 2000; 이주영, 2000; 정연, 2001; 신희심, 2001; 김윤경, 2002)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특히 헤어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유행컬러에 민감하고 직업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자연스럽게 모발염색의 유행을 만들어내고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들이 추구하는 모발색상선호도와 제품선택기준을 알아봄으로써 현재 유행하는 헤어컬러의 흐름을 파악하고 고객들에게 모발염색을 통한 최상의 개성적 이미지를 연출하여 고객들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선행자료를 제공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는 2001년 10월부터 2002년 2월 사이에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였으며,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박준 미장 청담 본점을 비롯해 서울, 경기권 및 기타지점 35개 지점에서 본사 교육에 참가한 헤어디자이너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부적절한 응답을 한 17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03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을 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선행연구 결과(나영순·유현주, 2000; 최귀자, 2001)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고 일반적 특성 6문항, 모발 염색시 컬러선택에 관한 사항 13문항으로 총 문항수는 19 문항으로 하였다.

2.2. 분석방법

설문지는 전산부호로 자료화되어 SPSS PC+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코팅 시 선호하는 색상과 염색 시 선호하는 색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른 국내제품과 외국제품과의 제품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셋째, 성별에 따른 선호 제품 및 선호 이유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의 비율은 남자가 전체의 31.1%, 여자가 68.9%를 차지하였다. 나이 분포는 20대가 전체의 81%, 30대가 19%를 차지하였다. 대상자들의 학력분포는 고등학교 졸업이 전체의 60.5%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교 졸업이 18.2%, 중학교 졸업이 12.1%, 초등학교 졸업이 6.1%, 대학교 재학이 3.1%를 차지하였다.

거주지 분포는 강남이 전체의 41.7%로 가장 많았으며, 강북이 26.2%, 서울근교가 18.4%, 기타지역이 13.7%를 차지하였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전체의 75.8%, 기혼이 24.2%를 차지하였다. 월 평균 모발염색 횟수는 2번이 전체의 55.3%로 가장 많았으며, 3번이 19.4%, 4번이 12.6%, 1번이 11.7%, 5번이 1%를 차지하였다.

3.2. 성별에 따른 코팅컬러 선호도

헤어 디자이너들의 헤어 코팅 시 선호하는 컬러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여서 남·녀별로 선호하는 컬러에 대한 빈도와 분포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남자는 자연갈색과 청진주색을 각각 28.1%로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여자의 경우 오렌지색이 29.6%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투명색, 자연갈색, 청진주색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대가 20대가 많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최근의 유행색깔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여자의 경우는 유행에 신경을 쓰는 부분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청순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크며 다양한 컬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성별에 따른 염색 컬러 선호도

헤어디자이너들의 모발 염색시 선호하는 컬러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여서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컬러에 대한 빈도와 분포도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른 컬러 선호도는 남자의 경우 흑색을 전체의 28.1%로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응답을 한 반면에 여자들의 경우는 남자들보다는 여러가지 다양한 컬러를 선호한다고 응답을 하였는데,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컬러는 자연갈색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하였다.

Table 1. Preference of semi permanent color by gender

n(%)

Gender	Semi permanent color									
	Clear	Yellow	Orange	Red orange	Black	Red	Natural brown	Pearl	Blue pearl	Total
Male	-	-	3(9.4)	-	-	3(9.4)	9(28.1)	8(25)	9(28.1)	32(100)
Female	14(19.7)	5(7)	21(29.6)	5(7)	3(4.2)	-	13(18.3)	-	10(14.1)	71(100)

Table 2. Preference of permanent color by gender

n(%)

Gender	Permanent color									Total
	Clear	Blue	Yellow	Red orange	Black	Natural brown	Purple	Blue pearl	Pearl	
Male	9(28.1)	-	3(9.4)	-	9(28.1)	8(25)	-	-	3(9.4)	32(100)
Female	-	5(7)	11(15.5)	5(7)	8(11.3)	24(33.8)	5(7)	10(14.1)	3(4.2)	71(100)

Table 3. Satisfaction of domestic goods by gender

	Male	Female	Mean	F-value
Price	3.00	3.06	3.04	.274
Quality	3.53	2.99	3.16	34.954***
Color	3.69	2.83	3.10	27.774***
Satisfaction	3.44	2.85	3.03	17.310***

***p<0.001

염색컬러에 있어서 남자들은 코팅 시 선호하는 색과는 달리 후색이나 자연갈색 등에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여자의 경우는 코팅시 선호하는 색과 염색시 선호하는 색이 거의 일치하였으나 적오렌지색이나 보라색 같은 트렌드성이 강한 컬러를 선호하는 경향도 보였다. 이는 여성들은 패션 트렌드에 어울릴 수 있는 헤어컬러로 가끔 변신을 시도하기도 하며 남성보다는 좀 더 색에 대한 지식이나 감각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4. 성별에 따른 국내·외 제품의 만족도 비교

헤어디자이너들의 모발 염색이나 코팅시 주로 선호하는 제품들에 대해 알아보고 남·녀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Table 3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성별에 따라 국내제품과 외국제품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는 국내제품의 경우 제품의 염색시 염색 후 전체적인 만족도 문항에서 남·녀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각 문항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국내제품의 각 문항별 만족도는 보통의 수준임을 알 수가 있었다. 유의차가 나타나는 문항들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국내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모든 문항에서 국내제품의 경우 남자들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자들의 경우 국내제품에 대해 그리 크게 만족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성별에 따른 외국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표이다. 외국제품의 만족도에 관한 조사에서는 전 문항에서 남·녀간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각 문항별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가격의 적정성에 관한 문항에서만 국내제품보다 만족 수준이 낮았으며 나머지 문항에서는 국내제품보다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Satisfaction of international brand goods by gender

	Male	Female	Mean	F-value
Price	2.72	2.87	2.83	1.507
Quality	3.91	3.72	3.78	2.905
Color	4.16	4.06	4.09	.695
Satisfaction	3.91	3.72	3.78	2.905

Table 5. Preference of goods by gender

n(%)

Gender	Goods n (%)			Total
	Domestic	International	Doesn't matter	
Male	8(25)	15(46.9)	9(28.1)	32(100)
Female	3(4.2)	52(73.2)	16(22.5)	71(100)

따라서 전체적인 모발염색 및 코팅 제품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외국제품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고 다양한 컬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시술평과정이나 결과 면에서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기 때문이라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외국제품들이 광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3.5. 성별에 따른 선호 제품

성별에 따른 선호하는 염색제품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선호제품에 대한 결과 남·녀 모두 국내제품보다는 외국제품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 분포비율은 남자의 경우 전체의 46.9% 여자의 경우 전체의 73.2%가 외국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 보아서 아직까지는 국내제품보다는 외국제품의 품질 및 제품의 이미지가 훨씬 더 나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6. 성별에 따른 특정제품의 선호이유

특정제품의 선호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섯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교차분석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6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요인에 대하여

Table 6. Reason for preference by gender

n (%)

Gender	Reason					Total
	Price	Color	Quality	Brand image	Nationality	
Male	-	20(22.5)	59(66.3)	10(11.2)	-	89(100)
Female	-	34(29.3)	59(50.9)	21(18.1)	2(1.7)	116(100)

응답한 빈도 수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특정제품에 대한 선호 이유를 알아본 결과 남·녀 모두 염모제의 품질이 우수함으로 인하여 특정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염색이나 코팅시 컬러의 우수성, 제품 자체의 이미지가 좋아서 특정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을 하였다.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는 전체의 66.3% 여자는 전체의 50.9%가 품질이 우수하므로 특정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가격 때문에 특정제품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헤어디자이너들의 경우 염색 제품을 선택할 때 가격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제품자체의 품질, 제품 사용시 색상의 우수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을 알 수가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컬러 트렌드에 민감하고 직업적으로 헤어컬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자연스럽게 모발염색의 유행을 창출하는 헤어 디자이너들을 통해 모발색상 선호도와 제품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해보면 남자는 모발코팅시 자연 갈색 또는 청진주색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염색시에 선호하는 컬러로는 흑색계통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여자들의 경우 남자보다는 다양한 컬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팅시에는 오렌지 색계통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염색시에는 자연갈색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헤어 디자이너들의 국내제품과 외국제품간의 만족도 수준에서는 가격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국내제품보다는 외국제품에 대하여 더욱 큰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제품에 대한 선호 이유로는 남, 녀 모두 품질의 우수성으로 인하여 특정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컬러의 우수성과 제품자체의 이미지도 특정제품을 선호하도록 하는데 큰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국내제품들도 외국제품에 비해 품질의 향상 및 제품자체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헤어디자이너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유행이 변하는 21세기에 살고 있으므로 가깝게는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디자이너들의 선호 헤어컬러를 파악하여 나아가 각각의 개성이 다른 고객들에게 가장 알맞은 모발색상을 연출해 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고객들은 염색 시술시 제품 선택에 있어서 헤어 디자이너들에 비해 가격 면에 더욱 민감해 질 수 있으므로 현 업장에서는 이를 감안해 좋은 품질과 양심적인 가격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특정 샵의 헤어 디자이너들만을 대상으로 한 점에 제한점을 가지며 일반인들의 헤어컬러 색상선호도, 현재 헤어컬러 유행색과 헤어 디

자이너들이 선호한 색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 박준 미장에 근무하는 헤어 디자이너에 대해서 확대 연구가 필요가 있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모든 헤어 디자이너들로 확대 해석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순·류은주·조성태·차영희·황희순 (1998) "퍼머넌트웨이브 및 헤어컬러링". 청구문화사, pp. 21-76.
- 김수정·이원수·최용호·안성구 (1996) 모발염색으로 인한 각피의 손상과 재생시간 경과에 따른 형태학적 변화-. *대한피부과학지*, 34(2), 257-263.
- 김순희 (1996) 퍼머, 염색, 탈색 시술에 따른 두발의 역학적·영양학적 변화와 전자현미경관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경 (2002) 염색 및 탈색에 의한 모발의 형태학적인 변화. 대구 카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영순·유현주 (2000) 양질의 미용서비스를 위한 모발색상 선호도에 관한 연구. *미용학회지*, 6(1), 21-35.
- 신희심 (2001) 퍼머·염색 시술조건과 순서에 따른 모발의 형태학적 변화.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미자 (2000) 미용관련학과 학생들의 염모제에 대한 인식조사.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영진 (2000) 전문미용사의 역할 개발. *한국인체예술학회지*, 1(2), 9-15.
- 이미선 (1999) "Hair Color Art". 현문사, 서울, pp.55-69.
- 이원경 (1999) 미용시술 처치에 따른 두피 및 모발의 변화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5(2), 579-589.
- 이주영 (2000) 모발의 종류에 따른 재염색과 재탈색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1(2), 61-78.
- 오지민·오지영 (2000) Permanent제와 Bleaching제에 의한 모발의 형태학적변화. *한국미용학회지*, 6(3), 753-767.
- 임병국 (1987) 염모제 소비 행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성 (2001)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 연 (2001) 퍼머·염색·탈색·코팅 시술에 따른 모발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 연·성수광 (1999) 모발 염색 전후의 역학적·영양학적 및 형태학적 변화.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4), 393-396.
- 정지영 (2001) 염색·탈색 시술 사후 처리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2(1), 242-249.
- 최귀자 (2001) 일부여성의 모발염색 실태와 관련요인 분석.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심미자·박미경 (2000) 미용관련학과 학생들의 염모제의 식과 발전방향. *한국미용학회지*, 6(2), 415-433.
- 최영진·유유정 (2000) 시판중인 모발 반영구적 염색약의 증금속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1(2), 167-175.
-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염모제의 안정성 실태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안전보고서.

(2002년 3월 9일 접수)